

따르다: 고대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다

3주 차 “안식의 길”

신명기 27:9-10

2023년 1월 15일

- 새해 초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.
-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
- 첫째, 우리 대부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깊이가 있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.
- 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.
-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더 깊이, 더 의미 있고, 더 깊은 목적 의식과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는 능력.
-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.
-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더 깊은 세상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.
- 그래서 매주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집니다.
-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.
- 그에 대한 특정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.
-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.
-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.
- 인생은 실제로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.
- 그가 하는 일을 합니다.
- 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.
-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오.
- 그러나 이러한 경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.
-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.
- 직관적이지 않습니다.
- 우리의 본성, 직감, 심지어 우리 세상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까지도 거의 항상 이러한 관행의 정반대입니다.
- 어떤 방향성(이 시리즈와 같은)과 의도성이 없이는

일부, 우리는 깊은 곳에서 실제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기적으로 이러한 연습을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.

- 예를 들어, 1주차에는 시간을 내어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경험,

우리는 듣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

- 하지만 소음과 제안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

- 그리고 지난 주에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나 인생이 날아갈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.

-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직관에 어긋나서 거의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그러나 그것은 심지어 십계명의 일부이기도 합니다.

-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...

안식의 길

- 한 가지 묻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언제입니까?

- 마지막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?

- 마지막으로 정말 쉬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?

- 속도를 늦추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흠뻑 빠져 본 적이 있습니까?

-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까?

-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오랜만입니다.

- 나에게 부탁을 들어주세요. 지금 당장 깊게 숨을 쉬세요. (숨 쉬다)

- 숨을 쉬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왜 그렇게 상쾌합니까?

- 현대 사회에는 독이 된 무언가가 있다.

- 물론입니다. 오늘날 세상에는 훌륭한 편의 시설이 많이 있으며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.

전자레인지, 자동차, 스마트폰을 갖는 것에 대해.

-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더 나아졌는가?

- 그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더 나아졌는가?

- 우리 문화에는 더 많은 시간 절약 장치, 기술적 편의 및 정보가 있습니다.

- 우리는 24시간 연중무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.

- 우리는 손끝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옵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끔찍하게 불만족스럽고 이상하게 연결이 끊어졌습니다.

- 성공에 집착하는 서부의 모든 혼돈과 리듬이

우리의 마음이나 몸, 심지어 영혼에 피해를 입혔습니까?

- 도시, 디지털 시대의 혼돈 속에서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,

"온 천하를 얻고 도 네 영혼을 잃으라." (마태복음 16:26)

- 하지만 우리 삶의 소음과 우리의 무능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하나님을 듣기 위해.

- 삽화: BQE

- 몇 년 전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옆에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.

- 그리고 나는 밤에 침대에 누워 방새도록 차 소리를 들었습니다.

- 가끔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

자동차 소리는 실제로 강이었습니다.

- 말 그대로 내가 강 옆에서 자고 있다고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.

- 경적이나 사이렌이 내 계획을 얼마나 많이 망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.

- 가끔 궁금합니다. 신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진다면, 아마도 신이 우리와 대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.

그러나 단순히 일상 생활의 포효 너머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

- 우리는 물건과 자극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만,

이상하게 비어 있습니다.

- 우리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살아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까?

- 이 혼돈 속에서 우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방식에 무언가가 있습니까?

바쁘고, 디지털에 산만하고, 시끄럽고, 도시적인 세상에서?

- 이것은 위대한 유대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.

그리고 그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.

- 그는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.

- 완전히 튀겨졌습니다.

- 계속하고 싶은지조차 모릅니다.

- 그리고 하나님은 "내가 나타날 것이니 엘리야는 산으로 올라 가라" 고 말씀하십니다.

-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가까웠고 이 바람이 산에 와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.

-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.
- 그리고 이 지진이 있습니다.
- 그러나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.
- 그리고 나서 이 거대한 불이 산을 뒤덮습니다.
- 그러나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.
-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이 옵니다.
- 이제 이 목소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논의가 있습니다.
- 가청 소음도 아닙니다.
- 그래서 어떤 번역자들은 하나님이 순수한 침묵의 소리 속에 계셨다는 문구를 번역합니다.
- 하나님은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.
-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.
- 하나님은 불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.
- 하나님은 침묵 속에 계셨습니니다.
- (긴 멈춤. 침묵)
-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 순간이 있습니다. 신명기 27:9;
- 그는 모든 사람을 한자리에 모은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.

신명기 27:9-10

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. "이스라엘 자손 여러분,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.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.

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,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."

- 조용히 하십시오.
- 그리고 들어라.
- 또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.

시편 4:4

당신이 당신의 침대에있을 때,

너희 마음을 살피고 잠잠하라.

여기 로 이사오기 전에는 오래된 포드 트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

- 다음은 사진입니다.

트럭 그림

- 그리고 그것은 오래된 AM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고 대시보드에 딱딱거리는 스피커가 하나 있었습니다.
- 방송 주파수를 거의 맞출 수 없었고,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나뻐습니다.
- 그래서 그냥 끄는 버릇이 생겼습니다.
- 예를 들어, 나는 아무것도 걸지 않고 운전합니다.
- 엔진 소리와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
-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.
- 혼자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
- 예수님의 길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 때 그것은 흥미롭습니다.
-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침묵과 고독의 리듬을 발전시킵니다.
-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일까지 행했습니다.
- 그들은 24/7 세상의 압력에 저항하고 침묵에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.

안식일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 고독을 경험하십시오.

- 태초에 인간에게 안식이 주어졌다.
 - 창세기 1장이 시적인 리듬으로 펼쳐집니다 .
 -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니라
 -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.
 - 또 이르시되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시고
 - 마른 땅이 나타나게 하라
 - 그리고 식물, 계획 및 나무를 싹트게 하시고...
 - 물이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
 - 새들로 하늘을 채우세요
 - 땅은 생물을 내라...가축과 기는 것과 수류들..
 - 그런 다음, “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...”라고 말씀하십니다.
 -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. 그래서 _
- 일곱째 날에는 모든 일을 쉬십니다.
-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흥미로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.

창세기 2:3

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마치셨습니다. 그래서 일곱 번째 그가 모든 일을 쉬던 날.³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가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위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.

- 그래서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이 잠재력이 가득한 동산에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말해줍니다. 그들의 첫날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이었다.

- 안식일은 창조 시의 일곱째 날이었을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첫째 날이었습니다.

-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이야기가 시작된 곳입니다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어딘가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.

- 휴식은 우리 문화에 매우 반직관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류 최초의 지식은 하나님이 쉬셨고 그들도 그와 함께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- 하나님께서는 자유로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.

- 그들은 휴가처럼 돈을 벌 필요가 없었습니다.

- 그는 단지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다.

-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십시오.

- 안식일은 성경 이야기에서 복음의 첫 번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.

-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의 본능과 싸웁니다.

- 내 생각에 지금 여러분 중 한 명 이상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.

휴식의 합법성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결로 가는 길입니다.

- 그래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.

- Judith Schulevitz 는 *New York Times*에 기사를 작성하여 그녀의 종교적 유태인 양육에 반항합니다.

- 특히 그녀는 안식일 준수에 대해 반항했습니다.

- 그러나 나중에 인생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.

- 그녀는 이렇게 씁니다.

- 내 기분은 토요일까지 매주 우울했습니다.
- 오후가 되면 나는 반응이 없고 시무룩해집니다.
- 일상적인 여가 활동에도 불구하고 나는 극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
- 그런 다음 나는 침대 때 그녀가 크게 미루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

종교 교육, 하고 싶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.

- 가까운 회당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.
- 마침내 나는 내 상태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.
- 나는 안식일이 부족하여 괴로워하고
-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.
- 업무와 우리의 관계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.

그러니 일중독을 유지해 온 기관을 대신해 주장하겠습니다.

수천 년 동안 합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.

- 이것은 매력적입니다.
- 또한 무엇이 매력적인지 아십니까?
- 휴식(특히 안식일 휴식)은 십계명 중 하나입니다.
-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?
- 사람들에게 과로를 강요하는 문화는 잔인하고 어둡고 비인간적입니다.

도둑질, 간음 또는 살인을 장려하는 문화로.

-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!
- 우리 중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우리가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.
- 그리고 이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중독자를 배출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

• 첫째, 기술입니다.

• 편리함은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것에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.

• 탈출구가 없습니다.

•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압박감만큼 업무에 가해지는 압박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.

- 경쟁에서 이기려는 시도에서 예측을 이기려는 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압력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횡포한 작업 환경.
 -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.
 - 좀 더 전통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것과 분리 됨으로써 정체성과 가치를 얻었습니다 . 가족이나 공동체.
 - 아들, 딸, 이웃, 친구로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.
 - 아니면 그냥 이 그룹이나 가족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.
 - 그러나 사회가 점차 개인주의적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
 - 보세요,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에서 "자유롭게" 일했습니다.
 - 그러나 이것은 이제 당신이 얻은 것에서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.
 - 달성해야 합니다.
 - 성취해야 합니다.
 -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.
 - 내가 말한 것을 들었습니까?
 -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려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.
 - 그 문장이 이상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.
- 믿고 우리가 사는 방법.
- 밖으로 나가서 해야 합니다.
 - 이것은 일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 - 당신의 일은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가치를 얻는 방법입니다.
 - 또는 귀하가 번 돈,
 - 또는 귀하의 사회 계층.
 -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고백합니다.
 - 내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말했는지 아십니까?
- 내 과로에 대한 변명으로?
- 그리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, 아니면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?
 - 고백하건대 그것은 제 마음에 정말 흐릿한 선이었습니다.

- 그리고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.
- 삽화: 안식년
- 거의 2년 전에 안식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.
- 그리고 우리 이사회는 몇 가지 정말 타당한 이유로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권유했습니다.
- 하지만 이제 막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있었고 이곳에서의 재임 기간이 너무 새롭기 때문에 저는 2022년으로 연기했습니다.
- 그리고 작년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2023년으로 했는데
- 2023년이 다가오면서 "아마도 2024년?"
- 내가 하는 일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?
- 휴식이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통제의 환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?
-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.
- 저의 전임자 중 한 분인 Ron Mehl 목사님은 수년간의 과로 끝에 엄청난 심장 마비로 거의 죽을 뻔했고 휴식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이 길에 대한 그의 반역을 고백했습니다.
- 그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.
 “안식일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심장이 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. 공격하십시오...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안식일 원칙을 위반한다면 인생, 라인을 따라 어딘가에 청구서가 올 것입니다. 상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. 붕괴는 신체적, 정서적, 영적, 재정적 또는 결혼 생활일 수 있습니다.”
- Ron Mehl 목사 , The Tender Commandments
- 휴식은 믿을 수 없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
-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.
- 따라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.
-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쁜 마음, 피곤한 몸, 스트레스를 치유하도록 허락합니다.
- 이제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. 하루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합니까?
- 우리가 일요일을 만들지 않으면 우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겠습니까?
-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.

-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.
- 즉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.
- 그리고 요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.
- 창세기로 돌아가기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쉬셨습니다.
- 이제 하나님은 자신의 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치실 수 없습니다.
-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
- 창세기 2장 2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 만족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- 그는 그것이 좋다고 말했고, 그는 그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.
-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했습니다.
- 외부 휴식, 노동으로 인한 신체적, 정서적 휴식이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.

규칙적인 리듬에 따른 깊은 내면의 영적 휴식.

- 아무리 많은 휴가를 가도 당신이 그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안절부절 못함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.
-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
- 그러나 안식일은 쉬기에 훨씬 더 복잡한 일입니다.
- 의도가 필요합니다.
- 허가가 필요합니다.
-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줄 것입니다.
- 먼저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.
-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
- 당신은 허용됩니다.
-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.
- 내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일요일은 제게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금요일 정오부터 토요일 정오까지.
- 그리고 나는 약간의 침묵과 고독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.
-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.
- 그리고 그 시간의 일부는 나를 채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상기시켜 주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.

- 숲에서 뛰거나 생명을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물에 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.
- 요점은 내가 다른 것들을 모두 끈다는 것입니다.
-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.
- 그와 함께 있다는 것, 그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바쁜 일을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시간을 갖고...지금...숨을 쉬십시오.